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전남도·학계 공감대 형성 나서

13일 서울 토론회 ... 20대 국회서 대선 공약 채택도 겨냥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관련된 민간 차원의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의미에서 명칭을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정하고, 학계의 검증은 거친 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한 목포~

제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사업 타당성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본부장, 경주대 김규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물류학회 박정섭 회장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물류학회 등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추진위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다음달 중순에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도 국회에서 가질 계획이다.

전남도는 학계와 업계에서의 해저터널 논의를 뒷받침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장에서는 만화 형식으로 만든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또 지난 3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이낙연 전남지사가 정부에 공식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사업인 서울~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낙후지역의 발전, 건설업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등의 장점을 가진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총 연장 167km(목포~해남 지상 66km·해남~보길도 교량 28km·보길도~제주도 해저터널 73km)로 착공되면 16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北 당대회 경축 카드섹션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오전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를 실황 중계했다. 평양 시민과 청년들이 당 대회를 경축하는 대규모 퍼레이드와 카드섹션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금융지원 전남금융복지센터 순천·무안에 문열어

저금리 상품·채무조정 서비스

10일 오전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순천의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무안의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문을 열었다. 센터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저금리 금융상품 안내 및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종합적 서민금융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민배려 시책 중 하나다.

전남도는 10일 "앞으로 고금리 대출자, 과도한 채무나 연체 등으로 신용위기에 처

한 도민들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으면 채무상담은 물론 저금리 상품 소개, 개인회생, 대부업체 등의 채무 독촉에 대한 대행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천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순천 061-729-0600)이나 전남도청 옆 중소기업지원센터(목포 061-285-3981~3)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는 신탁과 협약을 통해 일수대출 금리를 14.8%에서 5.9% 이하로 인하했으며, 올해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부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주벌리은행과는 악성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협약 체결, KEB하나은행과는 중장비 구입 대출 금리를 10%대에서 3.8%이하로 인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빛 때문에 죽을까봐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새로운 희망을 주기 바란다"며, "오늘 개소한 두 곳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시군에도 상담창구를 두어 도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 갑)

“문화수도 활성화 위해 주력 민생 최우선 의정활동 펼것”

송기석 국민의당 당선인(53·서구 갑)은 고향인 고흥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전형적인 '흙 수저' 출신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전남대와 한양대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건국대를 졸업한 뒤, 지난 93년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걸어들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에는 용공조작 사례로 꼽히던 '광주햇볕회 사건' 제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주목 받기도 했다. 송 당선인은 올 1월 퇴임과 함께 국민의당에 영입됐다. 경선에서는 경쟁 후보의 신인 가산점이 잘못 적용되면서 뒤늦게 공천이 확정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정치 입문 세 달만에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정치 입문은 어려웠던 시절의 초심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함께 한다면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쟁력은 훨씬 더 쟁쟁해질 것이다.

-시대적 과제는.

▲어려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이다. 서민 경제가 파탄 직전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쟁에 몰두한다면 시대적 직면이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야권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다. 야권의 지지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 과거 야권은 노동계, 대학생, 농어민, 서민과 중산층의 친구였다. 하지만 최근의 야권은 '그들만의 리그'인 계파 싸움 등에 치중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생의 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얘기해야 한다.

-대학을 세 곳을 다녔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남부름도 내기 어려웠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초심을 다시 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부끄럽지 않은 의정 생활을 약속드린다.

-호남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어렵다. 총체적 위기다. 선부른 대안보다는 함께 문제를 풀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기의 본질을 확인하고 모두가 한 걸음씩, 온 몸으로 밀고 나가 호남의 저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과 함께 해야 한다.

-지역민께 드릴 말씀은

▲지난 2월 창당한 국민의당은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 최선을 다해서 정권 창출로 보답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의정활동 방향은

▲법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다. 우선, 광주 문화수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돼야 한다. 상임위는 교육문화관광위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권 창출 가능성은.

▲38석의 소수 정당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태풍의 눈'이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의원 확대 등을 통해 거대한 태풍으로 부상, 정권 창출을 이룰 것이다.

-구체적 방법론은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여러 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3자

교육문화관광위 활동 희망

3자 구도론 정권창출 어려워

興후보와 일대일 만들어야

야권 지지 기반 복원 시급

구도로는 정권 창출이 쉽지 않다.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야권은 뿌리가 이질적이지 않다. 연합정부론은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금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국민의당에 승산이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 굳혀진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문이 열려있다. 강진에 집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 등

‘자금난’ 대불산단 조선 관련 업체당 20억원 금융지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불산단단지 조선 관련 업체들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0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박 건조·수리,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은행에 신청하면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일반 대출에 비해 평균 1.25% 낮으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은 저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한국은행 목표본부도 이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대불산단 조선 관련 업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낙연 전남지사와의 대화 및 5월 2일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금융과 고용 등에 관한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에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불산단의 고용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 (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졸중,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증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 · 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